

7차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

- 6.27일(토) 00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리터당 150원 인하 -
- 중동전쟁 종전 MOU 합의 등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분 선제 반영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6월 27일(토) 00시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키로 발표하였다. 150원 인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에 적용되며,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된다. 금번 인하 결정에 따라 주유소 가격은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주 미국-이란 종전 MOU 합의 이후,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가 증가하는 등 중동정세의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6.25일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불대 초·중반*까지 하락하였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6월초 대비 크게 하락**하였다.

* 국제유가(\$/B): 브렌트 (6.1주) 95 → (6.2주) 91 → (6.3주) 80 → (6.25) 75
WTI (6.1주) 93 → (6.2주) 88 → (6.3주) 78 → (6.25) 72
두바이 (6.1주) 94 → (6.2주) 88 → (6.3주) 75 → (6.25) 64

** 국제제품가(\$/B): 휘발유 (6.1주) 116 → (6.2주) 116 → (6.3주) 104 → (6.25) 97
경 유 (6.1주) 148 → (6.2주) 138 → (6.3주) 116 → (6.25) 112
등 유 (6.1주) 144 → (6.2주) 138 → (6.3주) 115 → (6.25) 111

정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도의 기본 취지 아래, 국내 석유가격 안정과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7차 최고가격을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 유류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유소 가격 인하에는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 하락을 국민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주유소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소비자 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범부처 시장점검단’을 통한 고강도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불법행위 주유소를 적발하고,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7차 최고가격은 향후 4주간 적용될 예정이지만, 중동정세, 국내외 유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상황 변화에 따라 4주 조정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5220)
		담당자	서기관	이재익 (044-203-5213)
			사무관	김만식 (044-203-5215)

